

완도 전복, 온라인 할인 행사 연다



완도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실례는 봄, 완도 전복 짝' 온라인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4~5월은 전복 홍수 출하시기로 전복 품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진과 대량 출하로 인해 가격이 하락되

전복 홍수 출하시기 맞아 비대면마케팅 집중 직거래 장터·전복 관련 유튜브 영상도 준비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전복 홍수 출하시기에 맞춰 TV 예능 프로그램 및 유튜브 연계 전복 홍보, 네이버 쇼핑 할인 판매 등 비대면 마케팅에 집중했다.

온라인 이벤트는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되며, 완도군 특산물 쇼핑몰인 '완도군이슈'(www.wandofood.go.kr) 기획관에서 할전복 세트를 시중 최저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 판매한다. 또한 완도군이슈에서 기획 상품 구입 시, 건당 5000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1,500건)으로 지급하여 우수한 완도산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군은 5월 중 수도권에서 완도 수산물 상생할인 직거래 장터와 현대백화점과 연계한 전복 할인 행사도 준비 중이다. 구독자 97만을 보유한 국내 수산 전

문 유튜브 '수빙수'의 전복을 주제로 한 동영상 2편의 조회 수는 업로드 61만 회를 넘겼으며, 앞으로 전복 관련 동영상 2편을 더 업로드 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에 준비한 완도 전복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복을 구입해 면역력을 키우고,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복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며, 아르키닌과 비타민, 철분, 칼륨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원기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좋다. 완도=이민혁기자



해남군 흑석산 '치유의 숲' 개장

참나무 군락지 740m 무장애데크 등 조성...치유프로그램도 운영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에 위치한 치유의 숲이 22일 개장했다. 흑석산 일원 50ha 참나무 군락지에 위치한 치유의 숲은 2015년부터 착공, 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5년만에 조성을 완료했다.

치유센터(180㎡)와 프로그램실(104㎡) 각 1동을 비롯해 산책로와 2ha 면적의 치유정원 등이 조성됐다. 치유센터는 이용객의 신체 상태를 측정하는 등 이용객들의 심의 공간으로 이용되며, 각종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치유의 숲은 음이온 발생량이 많은 참나무 군락지를 중심으로 740m의 무장애 데크 길과 350m 흑(黑)돌길 조성돼 휴양객들이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을 걸으며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휴양림의 기능을 살려 건축물을 최소화하고 숲의 생태와 자연환경을 보존해 조성된 치유의 숲은 2020년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22일 열린 개장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해 30여명의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 이후 숲 자원의 중요성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흑석산 치유의 숲이 자연휴양림과 유아숲체험원과 연계해 명실상부 복합 산림치유단지로서 산림관광과 휴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은 산림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으로, 산림욕에서 몸풀기 체조, 숲길 걸으며 숲해설 듣기, 숲향기 느끼기, 숲에서 햇빛 샤워하기, 물에 발 담그고 세척하기, 참나무 체험하기, 숲속 요가나 명상 등 산림을 통한 스트레스 회복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한다.

코로나19상황에서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산림치유프로그램 참여자 흑석산 치유의 숲 홈페이지(http://heukseok.haenam.go.kr)로 신청하면 된다. 체험료는 5,000원이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친환경 배합사료 가공공장 준공...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연 매출 240억 원 예상...양만어가 60% 예약 완료·고용 창출 기대

장흥군은 가공 후 버려지는 어류 부산물과 장흥 표고버섯을 활용한 10,000톤 규모의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준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예상 매출액은 240억 원이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수산자원 남획 방지 및 양식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에 크게 부응한다.

아울러 양만어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양만어가에서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아, 1ha에 272백만 원의 직불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식 어가들이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번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은 연면적 2,553㎡(772평) 규모로 총 65억 원(보조 32억 원/국 20/군비 12), 자담 33억 원)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규모를 확대해 명실공히 장흥의 대표적인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으로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발맞춰 장흥군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가공 후 버려지는 어류 부산물과 장흥 표고버섯 부산물의 배합 가공으로 생산으로, 수입 어분에 100%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국내산으로 대체해 국내 내수면 양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에 건립된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에 지역민들을 고용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활력이 붙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작천면, '작천초등학교 살리기' 개교 100주년 역사 자랑 불구 현 학생수 16명 그치며 폐교 위기



강진군 작천면, '작천초등학교 살리기' 개교 100주년 역사 자랑 불구 현 학생수 16명 그치며 폐교 위기

강진군 작천면은 지난 21일 면사무소에서 '작천초등학교 살리기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수 감소로 존폐위기에 놓인 '작천초등학교 살리기'에 머리를 맞댔다.

이승욱 군수를 비롯한 작천면장, 작천초·중학교장, 지역발전협의회장,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청년회장, 금까내 대표 등 21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농촌인구 감소와 취학대상 아동 외지 유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를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작천초등학교는 개교 이래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현재 학생 수가 16명에 그치며 폐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면

내 취학대상 아동의 타지 유출을 막고,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작천초등학교도 앞으로 자체적으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원 등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유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작천초가 폐교위기에 놓여 안타깝다"면서, "농촌 지역의 미래 희망을 위해서라도 마을의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데 뭉쳐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 군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내일부터 온라인 개최

진도군은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온라인 비대면 축제로 개최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지난해 전면 취소됐지만 올해는 온라인 축제로 바닷길이 열리는 현장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신비의 바닷길 현장 동영상 드론 촬영, 뽕할머니 제례

와 진도북놀이 등 진도만이 간직한 전통 문화예술 공연 중계는 물론 온라인 실시간 댓글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차단·확산 예방을 위해 바닷길 현장 방문 자제를 요청한다"면서 "진도군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프로그램은 실시간 현장감 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